

내 친구



엄마가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강아지한테서
고약한 냄새가 났어요.



군데군데 털이 없고 배도 흘쭉했어요.



아빠는 강아지를 목욕시켜요.



엄마는 강아지 집을 꾸며요.





나는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어요.
강아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아픈 것 같아요.





강아지가 밤새 킁킁댔어요.
엄마가 내일 병원에 데려간대요.



나는 서둘러 학교에 가요.
오후에 친구들과 축구를 할 거예요.

친구들이 축구하는 데 나를 끼워주지 않아요.



나는 속상해서 돌을 걷어차며 집으로 왔어요.



오늘도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혼자라서 더 슬퍼요.



아니, 오늘은 강아지가 집에 있네요.



바로 '아지' 였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나를 반겨 주세요.
아이참, 아지가 나한테 놀자고 하네요.



우리는 함께 친구가 되어 산책해요.

이 책을
만들어
주신 분들

자문위원장

이영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자문위원

유충열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구 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연구진

김태선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서해주 인천광역시교육청

심의검토진

박은숙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최혜봉 인천한누리학교

김대성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차의진 부흥중학교

집필진

안미숙 인천장수초등학교
한지선 인천남동초등학교
최혜봉 인천한누리학교

주지은 인천장서초등학교
설희순 인천은봉초등학교

다국어 번역

김 사 랑 인천한누리학교(러시아어)
뚜엣마이 인천한누리학교(베트남어)
이 희 연 인천남동고등학교(영어)

박디나라 인천한누리학교(영어)
장 향 화 인천한누리학교(중국어)

저작권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내 친구

